



어린이

중학생을

위한

性教育

지침서

가르쳐 주세요

(제 2 회)

■ 鄭 東 哲

정동철 신경정신과의원장

〈편집자 註〉

지난호부터 연재되는 “가르쳐 주세요”는 정신과의사인 鄭東哲박사가 집필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정박사는 어린 아들·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性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하나? 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사와의 상담은 전화 265-6568 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으로 하면됩니다.



성적언어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가르쳐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어머니가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조기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요즘에 그 핵심에 접근하여 궁금증을 풀어준다면 그 이득은 대단히 클 것이다.

「가르쳐주세요」란 어린이 성교육서에 대한 반응이 검토되었었다. 부모의 태도가 우선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려왔다. 아이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어머니의 입장이었다. 10명중 1~2명은 이 책을 아이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어떤 기자는 거들어 성교육을 모조리 까발기는 입장에서 할 필요가 무엇이나고 반문하기도 할 정도였다. 이유는 두가지 점에 있었다. 그림으로된 임신의 이치가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성교행위를 우리말로 솔직한 어휘를 사용했다는데 부끄러움을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라는 것이다. 더러는(특히 기자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할 성교육을 정신과 의사가 썼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

지 않는다고 거부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어이없는 일이다.

성교육에 앞서 무엇보다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장벽이 바로 여기에 있음이 분명히 나타났다. 아무리 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태도가 있는 곳엔 성교육이 올바르게 있을 수 없겠다. 나와 절친한 어떤 고등학교 교장은 「가르쳐주세요」와 「성과 성교육」을 교직원에게 만연히 소개를 하고선 (좋은 책이라고) 그것을 캐비닛에 넣고 보여 주지 못했다고 했다. 선생님들이 왜 보여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했었는데 역시 교육의 태도가 얼마나 굳어있는 것인지를 말해준다.

아이들, 특히 국민학교의 어린아이들에게 성행위가 아이를 만들게 되는 뜻이고 어머니의 질이 곧 출생의 첫 길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렇게 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마 난 어떻게 생겼지?」

「엄마 그런데 나는 어에서 나왔을까?」라는 질문에 올바르게 가르쳐줄 수 없는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상상하면 딱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하므로써 어머니의 성역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언제나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기본적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

지만 설사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아이들의 호기심이 어머니의 생각과 느낌과 같은 수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고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지적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흉내를 내면서 어머니 아빠의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곧 알 수 있는 일은 그들은 그저 단순히 여자이니까 어머니며, 또 남자이니까 아버지라는 것 뿐이다. 엄마로서 또는 아버지로써의 정확한 느낌에 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와 간호원의 병원놀이를 할 때 그들이 진정 의사의 느낌과 간호원의 느낌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만일 성에 관한 흉내를 낸다고 하면 결코 성적 흥분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도 또한 관찰할 수 있다. 어머니 자신이 성교라는 의미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결국 아이의 잘못을 마치 어머니 자신의 느낌을 전제로한 잘못으로 오인하고 그래서 대답에 또한 그런 느낌이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말도 할 수 없게 되는 이치가 증명되는 것이다.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어머니는 성에 관해 솔직하지 못하다는 뜻이며, 성에 관해 편견과 위장된 윤리관으로 무장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한다.

언어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더욱 복잡한 것 같다. 눈, 코, 귀, 입, 손가락, 배 등 몸의 부분을 익히는 아이를 보고 자랑스럽고 대견하여 만면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어머니가

사타구니 사이의 명칭에선 아연실색하고 건너 뛰거나 더러는 야단을 치고 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특히 여자에게 그 터부는 실로 대단하다.

교육의 매체가 언어라는 것은 물론이다. 합리적 사고방식과 학문의 발달이 정확한 어휘와 관련된다는 것도 말할 나위가 없다. 어휘의 발달과 언어의 구조가 익혀지면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감과 사상을 키워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는 것도 따라서 어린시절 자신의 해부학적 구조에 단어를 익히며 주변의 환호를 들어가면서 커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눈, 코, 입 등을 외운데다가 그 하나하나가 예쁘고 잘 생겼다고 할 때 아이는 자신을 갖게 된다. 만일 언젠가 아이가 입을 가르킬 때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무시하려한다면 훗날 수술을 하여 예쁜 입술을 갖어도 자신은 입에 관해 열등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성기에 이르러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성기는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될 것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또한 더럽고, 죄스런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갖고있는 자신을 훗날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인지 그 상상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성만 대하면 수줍고 부끄럽고, 성에 관한 생각만해도 죄책감에 휩싸여 자신감을 잃고

유모의극장

■ 교복자물화 이후

사복 차림의 학생이 버스표를 안내양에게 내민다.

안내양: 학생입니까?

학 생: 예, 학생입니다.

안내양: 그럼, 학생증 좀 봅시다.

학 생: 당신은 안내양이죠?

안내양: 보면 몰라요.

학 생: 그럼 안내양증 좀 봅시다.

안내양: ?!

■ 야구광의 여성

여보! 저번달까지만 해도 외박하는 숫자가 3할대를 마크하더니 이번

달에는 부족 늘었어요.

4할5푼8리. 왜 그렇게 성적이 저조해요. 매일같이 술만 잡수시고, 열두시 넘어서 집에 들어 오시니깐 방법대원 아저씨에게 태그아웃 당해 가지고 집에도 못들어 오게 되잖아요.

앞으로 제 싸인 없으면 친구들이 붙잡는다 해도 스틸이라도 해서 홈에 세이프하도록 해요.



도망가는 아이가 되고 말 것이다. 결혼하여 성생활자체까지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임상적으로 흔히 목격되는 것이기도 하다. 단어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일들이다. 조지 오웰이「1984년」이란 작품속에서 언어정책을 통한 인간의 의식구조개혁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의 말을 말살하려했던 것이 우리의 정체감을 지워버리려고 했던것과 같이 그렇게 말은 중요한 것이다. 인간생활에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비해 그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게한 어머니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오해와 미신적 사고만 늘게한 결과가 된다고

하면 과연 끝까지 성적언어를 피하고 감추어야만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아이들은 어차피 성에 관한 언어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것들은 「욕」할때 쓰는 저주스런 의미로 바뀌어 있을 때이다. 성적 행위 즉, 부모의 그런 행위가 욕이 된다는 뜻과 같으니 이것이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가르쳐주세요는 바로 이런 벽을 깨치고 자연스럽게 합리적 이해를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알려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계속>